

Hana FX Weekly Letter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7. 14

주간 달러/원 동향(7/7~7/11)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초반, 트럼프 행정부의 8일로 제시된 관세 유예 기한 종료 및 이후 서한 발송 예고 등으로 안전 통화 선호 강화에 달러 강세 반영되며 환율 상승 출발. 이어 간밤 미국의 한국, 일본 등 14개국에 상호 관세를 서한 발송 소식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는 양상 보이며 상승했지만, 실제 부과까지 협상 시한이 있다는 상황 등이 고려되며 보합권 되돌림 된 국면 시현. 중반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별 관세 부과 압박에 따른 우려가 재차 고조되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 속 국내 외국인 자금 유출 확대 등이 맞물리며 상승. 후반 들어, 한은 금통위의 금리 동결 속 향후 방향성에 대한 다소 비둘기적 기조가 일부 완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 하지만 트럼프 품목별 관세 및 상호 관세 부과 지속 상황이 달러 약세를 견인함에 따라 환율은 1,370원 초반 안착 시현. 이어 주 후반, 트럼프의 캐나다 등 주요국에 대한 관세 위협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 강화 속 상승 마감

달러/원 전망

- 금주는 환율 상승 요인이 다소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여짐
- 우선 트럼프의 관세 대상 국가에 대한 추가 압박 지속 요인 등은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면서 환율 상승 압력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최근 미국 고용지표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측면도 연준의 매파 성향 우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달러 강세 우위 속에 환율 상승 흐름 다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지난주 금통위가 도비시 했지만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가운데, 뉴욕증시 강세 등이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 등에 영향 미치며 상단 제한할 요인으로 판단

예상거래범위

1,365원 ~ 1,385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62.7 1,377.5 1,361.7 1,375.4 +13.1

유로·엔화 동향 (7/7~7/11)



유로화 동향

- 주초, 트럼프의 한일 양국에 대한 관세 서한 통보 후, 달러 가치 상승에 유로 하락 출발. 이어 미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안전자산 선호에 미친 영향에 달러 가치 상승세 이어지며 유로화는 하락세 후 소폭 반등한 국면 시현
- 중반 들어, 6월 FOMC 의사록 공개에서 매파적 성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확인된 측면 등이 반영되며 유로화는 점진적 상승세 지속
- 후반 들어, 미 실업보험 청구건수 감소하는 고용 관련 긍정적 개선 속에 EU에 대한 미국 관세 부과를 앞둔 경계감 등으로 달러화 강세 영향 반영되며 유로 약세 전환. 이어 주 후반,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가에 대한 관세 서한 발송과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 부과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 국채금리 상승이 맞물리는 영향 등이 반영되며 유로 약세 마감



엔화 동향

- 초반, 미국의 무역상대국에 대한 관세 서한 발송과 관련, 구체적 내용 확인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 움직임에 따라 엔화 매도, 달러 매수 강화 속 엔화 약세 출발.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 공개에 따른 8.1일부터 모든 일본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일단 협상에 시간은 벌었으나 정책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일본 경기 둔화 가능성 등으로 약세 흐름 지속된 국면. 중반 들어, BOJ의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 확인을 위해 금리 인상에 신중해질 것이란 관측 속 엔화 매도세 유입 등으로 엔화 상승세 시현 지속. 후반 들어, 트럼프의 필리핀 등 7개국 관세 서한 발송 이후, 이러한 정책이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으로 달러 약세 현상 속 엔화 강세 보였지만, 일본 PPI 물가 둔화에 엔화 강세 완화 국면 시현 후, 주 후반, 미국의 강경한 관세 정책 관측 속 직접적 영향력에 놓인 엔화 매도 등으로 약세 마감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774	1.1789	1.1663	1.1688
			-0.0086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4.4	147.5	144.2	147.4	+2.95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7/7~7/11)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초반, 미 관세 관련 트럼프 서한에 대한 경계감 속에 상승 출발한 국고채 금리는 이어, 대외적 호중중앙은행 매파적 금리 동결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둔 확대 재정정책 우려 등 금리 상승 영향 속 외국인 국채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 시장 방향성이 모호해지며 국고채 금리 혼조세 시현
- 중반 들어, 7월 금통위 관망 심리 팽배해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 중단 기간에서 순매도 영향이 국고채 시장 약세 견인하며 상승
- 후반 들어, 7월 금통위가 다소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보이며 국고채 시장 강세 압력 작용 속,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등도 금리 하락 전환에 영향 이어 주 후반,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영향 제한된 가운데, 전일 금통위 8월 금리인하 기대가 확대됨에 따라 하락세 이어지다 장 막판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규모 확대에 따른 영향 반영되며 상승 전환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초반, 미 관세 유예 종료로 앞두고 불확실성 커지면서 투자심리 위축되며 하락 출발했으나, 전 거래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추경 예산안 기대감 반영되며 소폭 상승 전환. 이어 트럼프 관세 서한 통보에 부정적 투자심리 보였으나, 이내 관세 발효 시점 이전인 내달 1일 전 추가 협상 통해 관세를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 반영된 가운데, 삼성전자 어닝 쇼크 발표에도 자사주 취득 결정 등이 낙폭 제한하는 가운데 상승 확대된 국면
- 중반 들어, 관세 불확실성 이어지며 외국인 반도체 업종 중심 매도 등이 상승 제한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일부의 관세 협상 낙관론 속 상법 개정안 후속 개정예 따른 정책 기대 등으로 코스피 연고점 경신
- 후반, 뉴욕 증시 AI 기술주 훈풍에 반도체 강세 나타난 가운데 한은 향후 3개월내 금리 조정 가능성 등 다소 비둘기적 기조로 연고점 재경신. 이어 주 후반, 뉴욕 증시의 엔비디아 강세 등으로 코스피 상승 이어졌지만, 연고점 경신 부담 속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 마감